

## PC-14

## 옥수수와 콩의 노동 및 자본투입을 고려한 농장경영모델 개발

박계원<sup>1\*</sup>, 박정미<sup>1</sup>, 조성연<sup>1</sup>, 김익제<sup>1</sup>, 민병익<sup>1</sup>, 송영섭<sup>1</sup><sup>1</sup>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서론]

농촌지역의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등은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관련된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문제는 인력감소 문제와 더불어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귀농의 활성화는 농촌의 과소화·공동화를 해소하고 귀농인의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농촌에 새롭게 진입한 신규농업인인 귀농인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인 농업의 중요한 시기인 초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옥수수와 콩의 노동 투자 시간, 유동 비용, 경영비 등을 점검함으로써 작목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 경영모델을 개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옥수수와 콩의 순별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경영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진흥기관의 추천, 농업명장 등의 기준을 통해 품목별 선도농가 3 농가씩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목표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경영모형을 발굴하였다.

## [결과 및 고찰]

경영모형 개발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옥수수의 경우 강원도 원주시, 평창시, 홍천군의 각 1호를 선정하였으며, 평균 재배면적은 12,300평, 옥수수 재배경력은 25년, 가족 노동력은 남 1명, 여 1명 등 총 2인 노동으로, 노동 집중 시기에는 단기고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콩의 경우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의 각 1호를 선정하였으며, 평균 재배면적은 11,000평, 콩 재배경력은 17년, 가족 노동력은 남 1명, 여 1명 등 총 2인 노동으로, 노동 집중 시기에는 단기고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옥수수 재배 시 경영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작업단계는 “수확” 작업으로 노동 집중 시기인 만큼 고용노동비가 133,330원/10a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작업단계는 “판매” 작업으로 직거래 판매를 위한 포장박스 등의 기타재료비가 131,900원/10a로 높게 나타났다. 순별 노동 투입시간이 가장 높은 시기는 7월 하순으로 10.1시간이었으며, 작업단계별 노동 투입시간이 가장 높은 작업은 수확 단계로 24.0시간/10a로 나타났다. 순별 유동비용이 가장 높은 시기는 7월 하순으로 63.2천 원/10a이었으며, 작업단계별 유동비용이 가장 높은 작업은 수확 단계로 135.0천 원/10a로 나타났다.

콩 재배 시 경영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작업단계는 로타리 작업으로 가장 고가의 대농기구인 트랙터가 활용되는 작업이라서 수도광열비, 수리비, 감가상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작업단계는 비료 살포 작업으로 88,776원/10a로 나타났다. 순별 노동 투입시간이 가장 높은 시기는 6월 하순으로 8.2시간/10a이었으며, 작업단계별 노동 투입시간이 가장 높은 작업은 야생동물피해 방지 작업으로 8.2시간/10a로 나타났다. 팽과리, 호루라기 등으로 조류 피해를, 그물 설치로 노루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콩 재배 시 필요한 유동비용을 순별·작업단계별로 정리한 것으로, 순별 유동비용이 가장 높은 시기는 6월 중순으로 243천 원/10a이었으며, 작업단계별 유동비용이 가장 높은 작업은 로타리 작업으로 186천 원/10a로 나타났다.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품목별 목표소득 5천만 원 달성 경영모형을 발굴했다. 옥수수의 경우 재배면적은 2.5ha가 필요하며 노지재배로 진행된다. 노동시간은 자가노동 992시간, 고용노동 362시간으로 총 1,354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면 총수입 71,532천원, 생산량은 82,169개, 경영비는 21,532천 원으로 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재배 시 약 10일 간격을 두고 12기작으로 진행되는 분산 파종으로 진행되는 우수요인이 있다. 콩의 경우 재배면적은 5.9ha가 필요하며 노지재배로 진행된다. 노동시간은 자가노동 1,083시간, 고용노동 698시간으로 총 1,781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하면 총수입 78,682천원, 생산량은 189,989개, 경영비는 28,682천원으로 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사업(과제번호: PJ015068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Tel. +82-43-220-5581, E-mail. airavu@korea.kr